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

*정치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

1. 머리말
2. 시 쓰기
3. 독서와 토론
4. 題名
5. 물놀이
6. 山祭
7. 맺음말

[국문요약]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저술된 북한산·금강산 등 7개 산의 유산기와 여행기록을 담은 일기를 자료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유람 중에 펼쳤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에 시 쓰기, 독서, 토론, 제명 등의 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시 쓰기는 특정장소에 이르러 선인들이 지은 시를 회상한 다음, 이와 비교하여 자신의 감흥을 시로 옮기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유람 중에 쓴 시는 대개 그 소재가 중복되었으며, 사대부들이 많이 찾은 명승지나 사찰이 주요한 소재였다.

사대부들은 유람 중에도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대부들은 많이 읽은 책은 『심경』, 『근사록』 등으로, 유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마음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 사대부들은 유람 중에 동행한 친지, 산에서 만난 승려와 많은 토론을 하였는데, 그 주제는 유교와 불교, 산의 경치와 역사, 전설과 문화유산 등 다양하였다.

명승지에 자신의 이름이나 시를 쓰는 제명은 조선시대에 매우 성행하였다. 사대부의 제명은 시 쓰기와 함께 선인의 유람관행을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강하였으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사대부들도 적지 않았다. 제명은 바위는 물론, 건물·나무 등 다양한 곳에 이루어졌으며, 승려와 노복이 글자를 새기는 데 동원되었다.

사대부들은 산을 유람하는 동안 계곡에서 탁족, 목욕 등을 하였는데, 여행으로 지친 몸을 위로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금강산에서는 '치폭'이라는 폭포타기 놀이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끝으로 산제는 지리산, 백두산을 여행한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주로 유람하는 동안 날씨가 좋기를 기원하였다. 특히 백두산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전통에 따라 산제를 지냈다.

1. 머리말

조선시대에도 여행은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다. 특히 사대부들 사이에는 전국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는 유람여행이 성행하였으며, 순례하듯이 평생 동안 산수를 누빈 사람들도 있었다. “讀萬卷書 行萬里路”라는 말이 있듯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수 유람을 중요한 공부의 수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당시 사대부들은 심신의 수양과 공부, 아름다운 산수의 감상, 문화유산의 답사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유람에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사대부들의 유람여행 과정에는 경치를 감상하고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것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을 하였다. 유람 길에 평소애 만나지 못한 친지를 방문하여 회포를 풀고, 악공과 기생을 동원하여 연회를 즐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詩를 쓴다든지, 題名을 하는 것과 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활동도 있었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유람 중에 펼쳤던 다양한 활동 또는 관행들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 또는 관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모습들이 담겨있는 자료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遊山記를 비롯하여 사대부들이 남긴 여행기록을 이용하였다. 먼저 유산기는 사대부들이 산을 등산한 체험을 산문으로 써서 남긴 일종의 기행문학으로, 그 형식은 작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첫머리에 유람의 동기나 목적, 동행인을 기술한 다음 날짜 별로 유람을 하면서 견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면 작가의 여행 중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北漢山·金剛山·俗離山·淸涼山·伽倻山·智異山·白頭山 등 7개의 산을 대상으로 한 유산기를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¹⁾ 이 밖의 여행기록으로는 개인이 매일 매일 경험한 바를 기록해 놓은 일기를 활용하였다. 일기는 그 특성상 여행자의 활동이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자료다. 이

1) 유산기의 분석 작업은 국역본이 있는 경우, 국역본을 이용하였으며, 지명, 인명, 물건의 명칭 등은 모두 원문과 대조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국역본은 참고문헌에 기록하였다.

책에서 활용한 일기들은 평생의 일상을 기록한 것보다는 주로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기행문 형식의 일기들로, 丁時翰(1625~1707)의 『山中日記』, 權燮(1671~1759)의 『遊行錄』, 丁若鏞(1762~1836)의 『汕行日記』, 韓鎮奭(1792~1844)의 『島潭行程記』 등을 이용하였다.

최근 들어 역사학과 한문학, 그리고 지리학을 중심으로 사대부들의 유람 여행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일기의 여행기록을 이용해 노정과 여행 준비물을 살펴본 연구,²⁾ 역시 일기를 이용해 여행의 동반자와 여행 중에 머문 사찰의 일상을 분석한 연구,³⁾ 사대부들의 유람 양상과 관행을 고찰한 연구⁴⁾ 등이 이루어졌으며, 한문학에서는 지리산 유산기를 통해 시기에 따른 사대부들의 의식변화를 추적한 연구⁵⁾ 북한산 유산기를 이용해 북한산이란 장소가 지닌 문화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⁶⁾ 등이 진행되었다. 지리학에서는 금강산·청량산·지리산·북한산의 유산기를 분석하여 여행자의 성격과 유람 동기, 여정의 특성, 여행관행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⁷⁾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유람 중의 부가적인 활동이라는 그 동안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
- 2) 정연식, 『조선시대의 여행조건 - 黃胤錫의 『西行日曆』과 『赴直紀行』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15,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123-143쪽.
 - 3) 이경순, 『1688년 丁時翰의 八公山 유람』, 『역사와 경계』 69, 경남사학회, 2008, 41-72쪽.
 - 4)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양상』, 『정신문화연구』 1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37-62쪽; 『朝鮮時代 士大夫의 遊覽의 慣行 研究』, 『역사민속학』 38,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81-114쪽.
 - 5) 최석기,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지리산유람과 그 성향』,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학회, 2000, 237-270쪽.
 - 6) 권경록, 『18세기 ‘三角山’의 문화지형과 공간의 재발견』, 『민족문화논총』 4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87-121쪽.
 - 7) 정치영,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15(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17~34쪽;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54-70쪽;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4(3), 대한지리학회, 2009, 260-281쪽;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21(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2. 시 쓰기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유람 중에 빼놓지 않고 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시를 읊고 짓는 것이었다. 사대부들은 방문하는 곳마다 그 장소를 소재로 선인들이 지은 시를 읊고, 다시 자신의 시를 지었다. 즉 특정장소에 이르러 선인들이 지은 시를 먼저 회상한 다음, 이와 비교해 자신이 느낀 감흥을 시로 읊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이 시를 짓는 장소는 거의 정해져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재가 서로 중복되었다.

예를 들어, 1485년 금강산을 유람한 南孝溫(1454~1492)은 普德窟을 탐방하면서 친구였던 金時翊이 남긴 시를 보고 이에 대해 화답하는 시를 썼다.⁸⁾ 역시 1493년 보덕굴을 구경하던 李龍(?~1504)은 자신의 선조인 李齊賢(1287~1367)이 이곳에서 지은 시를 회상하고 그 韻에 맞추어 절구 한 수를 지었다.⁹⁾ 가야산 紅流洞은 崔致遠(857~?)이 남긴 시가 있어 유명하였는데, 1625년 가야산을 유람한 李重茂(1568~1629)는 홍류동에서 이 시에 和韻하여 시를 지었다.

이와 같은 사대부들의 시 쓰기와 관련된 관행 때문에 산마다 시의 주된 소재가 되는 장소가 있었는데, 북한산은 山映樓·重興寺·東將臺 등이며, 북한산을 오가는 길에서 많이 경유한 洗劍亭·津寬寺 등도 詩作의 주요 무대였다. 금강산에서는 유람객들이 많이 방문하였던 長安寺·表訓寺·正陽寺·楡岾寺·보덕굴 등의 사찰과 萬瀑洞·鳴淵·隱仙臺·三日浦 등을 소재로 한 시가 많이 만들어졌으며, 속리산을 방문한 사대부들은 法住寺와 水晶峰을 보고 시를 많이 썼다. 그리고 청량산에서는 蓮臺寺·致遠庵·金生窟 등이, 가야산에서는 海印寺와 홍류동이 주된 시의 소재가 되었다. 지리산에서도 역시 雙溪寺·佛日庵·君子寺 등 사찰과 天王峰·龍游潭·聖母祠 등을 소재로 한 시가 많이 지어졌다.

사대부들의 유람과정에서 만들어진 시가 아름다운 경치나 문화유산만을 소

8) 南孝溫, 『秋江集』 卷6, 「遊金剛山記」.

9) 李龍, 『再思堂逸集』 卷1, 「遊金剛錄」.

재로 한 것은 아니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또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쓴 시도 있고, 안내를 해주고 숙식을 제공해준 승려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시를 지어 주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 승려들이 유명한 사대부에게 시를 부탁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유명인들의 시를 묶어 보관하였다가 사찰의 자랑거리로 삼기도 하였다. 청량산 연대사에는 유람객들이 찾아오면 보여주는 시축이 있었는데, 그 맨 앞에 있는 시는 李滉(1501~1570)의 것이었다.¹⁰⁾

한편 사대부들은 유람 중에 시를 쓰기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하여 여행에 나섰다. 시를 쓰는 데 필요한 붓·벼루·먹·종이 등 문방구와, 시를 지을 때 참고하기 위한 詩筒과 다른 사람들의 시집 등이 그것이었다.¹¹⁾ 종이는 휴대가 용이하고 시를 쓰기 좋도록 미리 잘라서 책으로 묶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시통은 한시의 韻頭를 얇은 대나무 조각에 써넣어 가지고 다니던 조그마한 통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휴대하였다. 시집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집도 있었으나, 『唐詩』, 『杜詩補遺』, 『南嶽唱酬集』 등의 중국 시집을 준비하는 사대부들이 많았다.¹²⁾ 이 가운데에서도 朱子 즉, 朱熹가 張栻·林用中과 함께 南嶽을¹³⁾ 일주일 동안 유람하면서 주고받은 시와 序跋文을 합쳐 묶은 『남악창수집』은 조선후기 사대부들이 유람 중의 시작에 많이 참고한 책으로 보인다.¹⁴⁾ 주자를 존경하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주자와 장식의 남악 유람을 산수 유람의 전범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태를 본받으려고 애썼는데, 그 하나가 시를 짓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청량산 여행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周世鵬

10) 金榮祖, 『忘窩集』 卷5, 『遊清涼山錄』.

11) 이옥(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완역 이옥전집』 1, 휴머니스트, 2009, 377-378쪽.

12) 1570년 청량산을 유람한 권호문은 『두시보유』, 1579년 가야산을 유람한 정구는 『남악창수집』을, 1671년 금강산을 유람한 김창협은 『당시』를 휴대하였다.

13) 중국 湖南省에 있는 衡山을 말한다.

14) 이 책은 명나라 때인 1500년에 鄧淮라는 사람이 주희와 장식의 문집에서 관련 시들을 골라 엮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1585년 이전에 복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李荇은 1531년 주희와 장식의 7일 산행을 본받아 7일을 기한으로 삼아 『남악창수집』에 실린 50수의 시를 차운하였다(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684-685쪽).

(1495~1554) · 權好文(1532~1587) · 金得珣(1555~1637) · 申之愷(1562~162

4) · 金中淸(1567~1629) · 金道明(1803~1873) 등이 모두 그들의 유산기에 주희와 장식의 남악 고사를 언급하였으며, 주세붕은 아래와 같이 자신이 청량산을 유람하고 쓴 시의 편수를 주희와 장식의 그것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이번 여행에서 지은 雜詠 85수와 앞뒤로 읊은 것을 함께 기록하여 『청량산음(淸涼山吟)』을 만들었는데, 100편 가까이 되었다. 돌아와 누워 아이들과 한 번 펼쳐보니 이 여행이 적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옛날에 주자와 장식이 남악을 유람할 때 갑술일에서 경진일까지 7일 동안 주고받은 시가 149편이었다.¹⁵⁾

사대부들은 산을 유람하는 동안 쓴 시를 유산기에 기록하기도 하고, 시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유람 중에 쓴 시의 편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면, 1707년 북한산에 오른 李灝(1681~1709)은 1박2일 동안 7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詩題는 ‘入山’과 ‘出山’, ‘望白雲臺’, ‘普賢峰’ 등이었다.¹⁶⁾ 李德懋(1741~1793)는 1761년 2박3일의 북한산 여행을 통해 41편의 시와 암자·사찰·누각·정자에 대한 記를 각각 1편씩 썼다.¹⁷⁾ 1796년 북한산을 유람한 申命顯(1776~1820)은 세검정·동장대·산영루·鎮國寺에서 칠언율시, 僧伽寺·扶旺寺·진관사에서 칠언절구, 圓覺寺·西巖寺에서 오언절구, 太古寺·중흥사에서 오언율시를 지었다.¹⁸⁾ 柳匡天(1732~1799) 역시 1779년에 북한산과 수락산의 여러 군데에서 시를 지었는데, 경치뿐만 아니라 김시습을 모신 淸節祠에서도 참배하고 느낀 바를 절구 두 수로 읊었다.¹⁹⁾ 1793년에 북한산에 오른 李鈺(1760~1812)은 유람에 나서기 전에 시에 대한 규율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 속의 사람을 지을 것이고, 사람 속의 시를 지어서는 안 되며, 시 속의 경치가 되게 할 것이고 경치 속의 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5) 周世鵬, 『武陵雜稿』 卷7, 『遊淸涼山錄』.

16) 李灝, 『星湖全集』 卷53, 『遊三角山記』.

17)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3, 『記遊北漢』.

18) 申命顯, 『萍湖遺稿』 卷2, 『遊北漢記』.

19) 柳匡天, 『歸樂窩集』 卷11, 『遊三角山記』.

라는 것이었다.²⁰⁾

〈표 1〉 청량산 유람에서 박종이 쓴 시

일자	시 편수	여행 거리	여행지	일자	시 편수	여행 거리	여행지
8.2	24	20	옥봉, 미곡천, 옥천제사	8.14	-	-	비로 서벽 주막에 머뭇
8.3	11	25	서곡, 백곡	8.15	46	40	순흥, 애진촌, 부석사
8.4	8	40	영해·영양 경계, 한천 주점	8.16	27	30	미륵당, 백운동서원
8.5	11	50	영양 주곡, 단곡	8.17	19	35	백운동서원, 순흥부
8.6	16	25	인곡, 육화암	8.18	18	20	영천 객사
8.7	35	10	청량산 일대	8.19	25	60	오천, 온계, 도산서원
8.8	10	15	청량산, 초방사	8.20	84	30	도산서원, 토계, 애일 당
8.9	11	20	인촌, 석대	8.21	17	30	장갈령, 영양
8.10	12	10	수월암	8.22	14	40	창포원
8.11	11	30	춘양장, 한수정, 각화사	8.23	5	40	백곡, 인동
8.12	32	40	태백산사고, 태백산, 서 운암	8.24	13	30	귀가
8.13	21	30	낙서암, 도심천, 서벽	계	470	670	

* 자료: 박종의 『淸涼山遊覽錄』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

1780년 청량산을 찾은 朴琮(1735~1793)은 그의 유산기인 『淸涼山遊覽錄』의 말미에 23일 동안 680리의 길을 왕복하였으며, 시와 古律을 합쳐 530여 수를 얻었다고 밝혔다.²¹⁾ 그는 또한 매일 자신이 쓴 시의 편수와 간 길의 거리를 기록하였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유산기 말미의 기록과 매일 기록한 시의 편수와 거리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매일 평균 20편 이상의 시를 썼으며,

20) 이옥(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앞의 책, 2009, 377-378쪽.

21) 朴琮, 『鑑洲集』卷15, 『淸涼山遊覽錄』.

가장 많이 쓴 날은 84편을 쓰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구경한 것이 많은 날에 시도 많이 지었는데, 陶山書院과 퇴계가 살던 토계마을²²⁾ 등을 둘러본 날 가장 많은 시를 남겼으며, 浮石寺를 유람한 날도 46편의 시를 썼다. 청량산에서는 50여 편의 시를 썼다.

지리산 여행자 가운데는 1618년 趙緯韓(1567~1649)이 산을 유람하며 102편의 시를 썼으며,²³⁾ 같은 해 梁慶遇(1568~?)가 27편의 시를 남겼다.²⁴⁾ 成汝信(1546~1632)도 정확한 편수는 알 수 없으나 머무는 장소마다 시를 지었고, 柳夢寅(1559~1623)은 義神寺의 승려들과 시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모든 사대부들이 시 쓰는 것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朴汝樑(1554~1611)은 『頭流山日錄』에 金臺寺 아래에서 절구 한 수를 읊조린 뒤, “나는 자질이 시를 짓는데 능하지 못하며, 또한 게을러서 시를 읊조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다.”라고²⁵⁾ 고백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여행 중에 시 쓰기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특히 유람 중의 좋은 여가수단으로 간주하였다. 87세의 고령으로 함경도를 여행한 권섭은 여행기록 말미에 총 113일에 걸쳐 2,280리를 여행하였고, 시는 203수, 文은 38수, 詞는 38수를 지었다고 썼으며,²⁶⁾ 배를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간 한진호는 여울 등으로 인해 배의 진행이 지연되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 배의 사대부에서 『劉長卿詩鈔』를²⁷⁾ 빌려보고 이 책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²⁸⁾

이 밖에 시를 특별한 용도로 이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정약용이다. 그는 주요 경유지 마다 시를 지어 시를 여정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정약용은 1820년과 1823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강을 배로 유람하였는데, 1823년

22) 현재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이다.

23) 趙緯韓, 『玄谷集』 卷14, 『遊頭流山遊錄』.

24) 梁慶遇, 『霽湖集』 卷11, 『歷盡沿海郡縣仍入頭流賞雙溪神興紀行錄』.

25) 朴汝樑, 『感樹齋文集』 卷6, 『頭流山日錄』.

26) 문경새재박물관 편역, 『玉所 權燮의 『遊行錄』- 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길』, 민속원, 2008, 385쪽.

27) 유장경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다.

28) 韓鎮辰·李民樹 譯, 『烏潭行程記』, 일조각, 1993, 27-28쪽.

의 유람기록인 『汕行日記』에 “경진년에는²⁹⁾ 시를 가지고 행로를 기록하여 갈 때에는 자세하였고 올 때에는 간략하였다. 올해는 별도로 수로를 기록하면서 갈 때에는 생략하고 올 때에는 자세히 기록하여 경진년의 기록과 서로 합칠 것이다.”라고³⁰⁾ 언급하였다.

3. 독서와 토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을 유람하는 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많은 사대부들이 유람에 나설 때 여행 중에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독서를 하였다. 유람 중에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로, 1579년 가야산을 유람한 鄭述(1543~1620)를 들 수 있다. 그는 절에서 숙박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近思錄』과 앞서 언급한 『남악창수집』 등을 읽었다. 정구는 특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사록』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난 후에 “구름과 산을 바라보며 백 가지 생각을 비우고 선현의 遺訓을 되새기니 저절로 정신이 하나로 모아져 깨달음이 생겼다.”고³¹⁾ 회고하였다. 『근사록』은 청량산에 오른 권호문, 지리산에 오른 남효온도 열심히 읽었다.

사대부들이 『근사록』과 함께 유람 중에 많이 읽은 책으로 『心經』이 있다. 『심경』을 읽은 이로는 금강산에 오른 洪仁佑(1515~1554)와 朴聖源(1697~1768)이 있으며, 지리산과 속리산의 사찰에 장기간 머물며 공부를 한 정시한도 거의 매일 『심경』을 읽었다.³²⁾ 이와 같이 산에 오른 사람들이 『심경』과 『근사록』을 가장 애독한 것은 두 책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마음공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였기 때문이다.³³⁾ 그러므로 여행자들은 산수 유람의 중요한 목적 중 하

29) 1820년을 말한다.

30) 丁若鏞, 『定本 與猶堂全書 4-文集』 Ⅲ, 『汕行日記』.

31) 鄭述, 『寒岡集』 卷9, 『遊伽倻山錄』.

32) 정시한은 1686년부터 1687년에 걸쳐 지리산과 속리산을 여행하였는데, 지리산에서는 4월 14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6개월(중간에 윤달이 끼어 있음)을, 속리산에서도 9월 27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며 머물렀다.

나인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책을 소지하고 항상 가까이 하였던 것이다.

정시한은 지리산과 속리산에서 『심경』 외에도 많은 책을 읽었다. 지리산에 처음 와서는 『箴銘』과 『仙經』을 많이 읽었고, 매일 金生體의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였다. 당시 정시한은 아들이 많이 아픈 것을 비롯해 집안일로 마음이 어지럽고 편안하지 못하여 병이 생길 것 같다고 『산중일기』에 자신의 심정을 자주 토로하였는데, 『잠명』과 『선경』을 읽고 金生(711~?)의 글씨를 익히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여기에 더하여 정시한은 지리산에서 『讀書錄』·『黃定經』·『群仙要語』 등의 책을 읽었으며, 속리산으로 옮겨 가서는 『陳北溪字義』·『聖學十圖』 등도 추가하여 읽었다.

정시한 외에 유람보다 독서를 목적으로 산에 들어간 사람으로, 1570년 청량산을 찾은 권호문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겨울철에 한 달 이상 암자에 머물며 독서를 하고 산에 오르며 사색을 하였다. 그는 청량산에 더 오래 머물며 독서를 할 생각이었으나, 스승인 이황이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하산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유람 중에 독서와 함께 토론을 즐겼다. 토론은 주로 저녁에 숙소에서 동행한 친지들과 이루어졌으나, 길을 가는 중간이나 잠시 휴식 중에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1553년 친구인 許國善·南時甫와 금강산 유람에 나선 홍인우는 도중에 이루어진 친구들과의 토론의 주제, 그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즉 주제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활발하게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세 사람은 여러 날을 함께 여행하면서 말고삐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자리에 붙어 앉아 질의하고 토론하였는데 마치 서로 싸울 듯이 논의하였다. ‘成已成物’의³⁴⁾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에는 나와 국선이 주로 대답하고 시보는 뒤따랐으며,

33) 한형조 외, 『근사록』-덕성에 기반한 공동체, 그 유교적 구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16-24쪽.

34) 『중용』에 나오는 말로, 나의 성취와 만물의 성취가 맞물려 있다는 의미이다.

‘出處仕止’의³⁵⁾ 문제를 논할 때에는 시보와 내가 대답하고 국선이 인정하였다. ‘不遺小物’의³⁶⁾ 주제에 대해서는 국선과 시보가 대답하고 내가 인정하였다.³⁷⁾

이와 같은 동행한 친지들과의 토론 외에도 승려와의 토론이 잦았다. 사대부들은 산을 유람할 때 대부분 절에서 숙박하였고, 승려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승려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토론할 기회가 많았다. 예를 들면, 1618년 금강산을 찾은 鄭曄(1563~1625)은 유점사의 승려들과 ‘心性’·‘輪回說’·‘存心法’ 등을 주제로 유교와 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으며, 토론이 유익하였음을 “세속 사람들과 더불어 한담이나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나왔다.”는 서술로 대신하였다.³⁸⁾ 1655년 지리산을 유람한 金之白(1623~1671)은 燕谷寺에서 숙박하며 노승과 불교의 ‘空’에 대해 담론을 하였다.³⁹⁾ 역시 1790년 지리산을 유람한 李東沆(1736~1804)도 明寂庵에서 道原이라는 승려와 유교의 ‘理氣論’, 불교의 ‘頓悟漸修’, 그리고 ‘禪’과 ‘教’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토론을 하였다.⁴⁰⁾ 이동항은 토론을 마치고 승려의 식견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렸다.

가야산에는 유람을 온 사대부들과 자주 담론을 나눈 승려가 있었다. 有璣라는 이름을 가진 승려로, 1757년 가야산을 유람한 崔興遠(1705~1786), 1781년의 鄭煒(1740~1811), 그리고 유람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金相定(1722~1788)이 모두 유산기에 이 승려에 대해 언급하였다. 최홍원은 유기가 불교 경전을 가르치는 승려로, 담론을 나눌 만하였으며, 그가 젊은 승려들과 강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의식과 절차가 위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가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없어진지 오래인데 불가에는 아직 남아 있다고 부러워하였다.⁴¹⁾ 김상정도 유기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⁴²⁾ 정위는 유기와 대화

35)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36) 하찮은 것도 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37) 洪仁祐, 『耻齋遺稿』 卷3, 『關東錄』.

38) 鄭曄, 『守夢集』 卷3, 『金剛錄』.

39) 金之白, 『澹虛齋集』 卷5, 『遊頭流山記』.

40) 李東沆, 『遲庵文集』 卷3, 『方丈遊錄』.

를 나누어 본 결과, 답론에는 능하나 시문은 숭상할 만한 것이 없다고 평가하였다.⁴³⁾

사대부와 승려와의 토론 주제는 유교와 불교의 이론에 머물지 않았고, 산의 고사나 사찰의 역사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1580년에 지리산을 찾은 邊士貞(1529~1596)은 神興寺에서 밤새도록 승려들과 지리산의 봉우리와 계곡의 절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훨씬 실감이 날 정도였다고 술회하였다.⁴⁴⁾ 이중무는 1625년 가야산을 유람하며 白蓮菴의 노승으로부터 가야산의 역사와 해인사의 창건 유래를 상세하게 전해 들었다.⁴⁵⁾

4. 題名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유람 중에 행한 활동 중에 특별한 것으로 題名을 꼽을 수 있다. 제명이란 경치 좋은 장소에 자신의 이름이나 시를 쓰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에서 다녀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낙서를 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오랜 전통이 있는 것이다.

제명은 모든 산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제명이 성행했던 곳은 일찍부터 많은 유람객들이 찾았던 금강산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20명의 금강산 여행자 가운데 절반인 10명이 자신의 유산기에 제명을 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는데,⁴⁶⁾ 이중 최초의 기록은 毘盧峰 바위틈에 시를 쓰고 삼일포에 자신의 이

41) 崔興遠, 『百弗菴集』 卷13, 『遊伽倻山錄』.

42) 金相定, 『石堂遺稿』 卷2, 『遊伽倻山記』.

43) 鄭緯, 『芝厓先生文集』 卷4, 『遊伽倻山記』.

44) 邊士貞, 『桃灘集』 卷1, 『遊頭流錄』.

45) 李重茂, 『柑溪集』 卷3, 『伽倻錄』.

46) 남효온(1485년), 이원(1493년), 성제원(1531년), 홍인우(1553년), 유운룡(1557년), 양대박(1572년), 이정구(1603년), 권업(1607년), 이형운(1615년), 정업(1618년), 이명준(1628년), 신익성(1631년), 이경석(1651년), 김창협(1671년), 김수증(1680년), 이만부(?), 박성원(1738년),

름을 새긴 1553년의 흥인우이며, 그 후 1607년 역시 비로봉에 제명한 권업(1574~1650)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명을 하였다. 1700년대 전반에 금강산을 찾은 李萬敷(1664~1732)는 만폭동에 있는 楊士彦(1517~1584)의 글씨 주변에, 자신의 조상들과 아버지의 이름을 비롯하여 글씨를 새길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중에는 아첨하던 사악하고 흉악한 역적의 이름도 대인군자의 이름과 더불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⁴⁷⁾

이러한 제명에 대해 “유력자들이 다투어 도끼를 가지고 바위에 새기면 기암 괴석이 필경에는 거의 완전한 형체가 없을 것이다. 사람 인형을 처음 만든 자는 楊蓬萊인가?⁴⁸⁾ 나는 제명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명을 삼고 이름을 새기지 않은 것으로서 이름을 새길 터이다.”라며⁴⁹⁾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李景奭(1595~1671)과 같은 이도 있었으나, 李命俊(1572~1630)·이동향과 같이 자신의 형이나 친척이 남긴 제명을 찾아 감회에 젖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다. 1628년 금강산을 유람한 이명준이 제명과 관련하여 『遊山錄』에 남긴 기록을 발췌해 보면, 먼저 九井峰의 돌에는 이름을 쓰고 종에게 새기게 하였고, 鴈門站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서 경치가 좋은 작은 대와 폭포를 발견하고 ‘李許臺’라는 이름을 짓고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겼다. 圓寂菴 근처에서는 권업 등이 절벽 위에 제명한 것을 구경하였고, 비로봉에 올라 바위에 제명하였으며, 보덕암의 벽에서는 죽은 형의 제명을 발견하고 추억에 잠겼다. 그리고 만폭동에서 양사언의 글씨를 구경하였고, 南臺에서는 바위에 ‘五仙巖’이라 썼고, 顯佛庵에도 이름을 썼다. 이명준이 제명은 여기서 그치지

이동향(1791년), 조필감(1802년), 이상수(1865년) 등 20명이며, 이 중 흥인우, 권업, 이형윤, 이명준, 신익성, 김수증, 이만부, 박성원, 이동향, 조필감 등 10명이 제명한 것을 유산기에 기록하였다.

47) 정우영 편, 『선인들과 함께하는 금강산 기행』, 인화, 1998, 153-154쪽.

48) “사람 인형을 처음 만든 자[始作俑者]”라는 말은 공자가 사람 인형을 순장하는 풍속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사람 인형을 처음 만든 자를 비난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에서는 양사언이 금강산 유람을 하며 만폭동에 글씨를 새긴 것을 금강산 제명의 시초로 보고 그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49) 이경수·강혜선·김남기 편역, 『17세기의 금강산기행문』, 강원대학교출판부, 2000, 191쪽.

않고, 安養菴의 벽에서 형의 이름을 발견하고 자신도 형 이름의 오른쪽에 제명하였으며, 만폭동의 飛流瀑에도 이름을 새겼다.⁵⁰⁾

금강산에서의 제명은 바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절·정자의 벽과 기둥 등을 가리지 않았는데, 1865년 금강산을 유람한 李象秀(1820~1882)는 이에 대해 “장안사의 동루와 서루에서부터 나무에 이름을 쓰고 새긴 것과 시를 새긴 것들이 수풀처럼 많았다. 정양사의 歇惺樓에 이르니 더욱 많았다. 대들보·마룻대·인증방·서까래·처마·기둥이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라고⁵¹⁾ 기록하며, 그러나 좋은 작품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였다. 제명의 내용도 유람자의 이름과 시를 비롯하여, 지형지물에 새롭게 명명한 이름 등 다채로웠다. 1680년 금강산을 찾은 金壽檜(1624~1701)은 장안사 앞에 새로 놓은 다리에 ‘問仙橋’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다리 곁의 돌에다 새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금강산에서 제명이 성행하게 된 데에는 위의 이경석의 지적과 같이 양사언이 16세기 후반 만폭동의 바위에 새긴 “蓬萊楓岳元化洞天”이란 글씨가 후대의 모든 유산기에 언급될 만큼 유명해지면서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유람객들의 욕구도 있었을 것이나, 그 보다는 시 쓰기와 마찬가지로 선인의 유람관행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강하였다. 이상수는 제명의 유래와 금강산의 제명 실태를 진단하고 중국 명나라 학자인 袁宏道(1568~1610)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제명을 비판하였다.

옛날 사람은 우연한 흥취로 인하여 더러 어떤 한 가지 일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깊은 뜻은 없었다. 그런데 후세사람들은 그것을 마냥 본받고 있다. 韓昌黎는⁵²⁾ 嵩山에서, 蘇東坡는⁵³⁾ 仙遊에서 모두 제명을 남겼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지나는 산천마다 모두 제명을 남긴 것은 아니었다. 금강산의 제명은 장안사의 동문에서부터 시작되어 명경대에서 성황을 이루고 만폭동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주먹만 한 돌도 온

50) 李明俊, 『潛窩遺稿』 卷3, 『遊山錄』.

51) 김동주 편역, 『금강산 유람기』, 전통문화연구회, 1999, 361쪽.

52) 중국 당나라 때 시인 韓愈를 말한다.

53) 중국 북송 때의 시인 蘇軾을 말한다.

전한 것이 적었다. 명나라 때 원굉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울법 가운데 산을 도둑질하고 돌을 떼어내면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속된 선비가 산을 오 염시키는데 울법으로 금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푸른 산과 흰 돌이 무슨 죄가 있어 까닭 없이 얼굴에 刺字를 하고 그 살을 찢는가? 아, 인자하지 못함이어.”⁵⁴⁾

위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제명이 당나라 때부터 행해졌으며, 이러한 관행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야산 여행자들이 많이 언급한대로, 가야산 홍류동에 최치원이 새긴 글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산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리산은 금강산보다 제명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더 이른 시기에 제명한 기록이 있다. 金宗直(1431~1492)이 1472년 지리산에 오르며 義吞村 근처에서 제자 俞好仁(1445~1494)으로 하여금 바위에 깬 이끼를 긁어내고 바위 한 복판에 이름을 새기게 하였다.⁵⁵⁾ 그리고 1489년 천왕봉에 오른 金駟孫(1464~1498)은 성모사의 들보에서 그의 스승인 김종직과 유희인이 제명한 것을 발견하였다.⁵⁶⁾ 1610년 지리산에 오른 박여량은 암자의 벽에 같이 여행한 8명의 이름을 썼다.⁵⁷⁾ 曹植(1501~1572)은 1558년 산행 중에 제명을 발견하고, “씩지 않는 돌에 이름을 새겨 억 만년을 전하러 한다. 대장부의 이름은 마치 푸른 하늘의 해와 같아서 史官이 책에 기록해 두고 넓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차하게도 원숭이와 너구리가 사는 숲 속 덩불의 돌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썩지 않기를 바란다.”라고⁵⁸⁾ 비판하였다.

속리산 여행자 중에는 南夢賚(1620~1681)가 1654년 文藏臺에 올라 석벽에 제명을 하였는데, “이끼가 떨어져 나가서 먹물이 베어들지 않아 돌을 갈아 겨우 글자의 모양을 이루었다.”라고⁵⁹⁾ 기록하였다. 청량산 여행자 가운데는 1614

54) 김동주 편역, 앞의 책, 368-369쪽.

55) 金宗直, 『佔畢齋集』 卷2, 『遊頭流錄』.

56) 金駟孫, 『濯纓集』 卷5, 『頭流紀行錄』.

57) 朴汝樑, 『感樹齋文集』 卷6, 『頭流山日錄』.

58) 최석기 외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0, 112쪽.

59) 김용남,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41쪽.

년에 산에 오른 金榮祖(1577~1648)·柳軫(1582~1635), 1647년의 裴幼章(1618~1687), 1706년의 權聖矩(1642~1708), 1709년의 이익, 1719년의 權以鎭(1668~1734), 1761년의 宋煥箕(1728~1807) 등이 제명을 하였다. 청량산 여행자들은 특히 자신의 선조나 친척, 그리고 스승의 제명을 찾아보고 지난 일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영조는 문수암에서 아래와 같이 아버지와 동생을 제명을 발견하고 일찍 죽은 동생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겼다.

문수암에 들어갔다. ... 문설주에 아버님이 이름을 쓰셨는데 1609년 가을이다. 형님과 다섯 아우도 일찍이 유람을 와서 이름을 썼는데 다섯째 아우의 글씨이다.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의 일이 바뀌니 슬픈 생각이 들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침내 지팡이 끝에 붓을 묶어 쳐다보고 일행의 성명을 쓰는데 손이 떨려 잘 쓰지를 못하니 획마다 가을 지렁이 같았다.⁶⁰⁾

청량산의 제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1561년 이황이 제자들과 유람하면서 致遠庵의 서쪽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쓴 것이었다. 청량산은 이황과 동일시되는 산이었으므로, 청량산을 찾은 사대부들은 대부분 이곳에 들러 이황의 제명을 감상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으며 승려들이 암자를 떠나면서 건물이 허물어지려 하자, 安東府使였던 정구가 1601년경에 이황의 필적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건물을 보수하고 제명 부분에 나무테두리를 둘러 보호하였다.⁶¹⁾ 그러나 1709년에 청량산을 유람한 이익에 의하면, 이황의 제명은 이미 지워졌으나, 후대의 사람들이 이황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 주변에는 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⁶²⁾

또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청량산의 경우, 바위에 제명하는 예가 드물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량산의 지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량산은 퇴

60) 청량산박물관 편,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7, 177쪽.

61) 김영조의 『遊靑涼山錄』, 유진의 『遊靑涼山日記』, 배유장의 『靑涼山遊錄』 등에 기록되어 있다.

62) 李瀼, 『星湖全集』 卷53, 『遊靑涼山記』.

적암류, 특히 주로 역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반면, 금강산·속리산·가야산과 같은 화강암 산지에서는 암벽에 글씨를 새기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가야산은 홍류동에 최치원의 글씨로 알려진 제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를 중심으로 많은 제명이 행해졌다. 1681년 申必淸(1647~1710)은 홍류동의 바위에 이름을 새겼으며,⁶³⁾ 1712년 兪拓基(1691~1767)도 홍류동에서 최치원의 글씨를 확인하고 바위에 새긴 친척 형과 아저씨의 제명을 발견한 뒤, 자신도 석벽에 이름을 새겼다.⁶⁴⁾ 鄭栻(1683~1746)은 1725년에 자신의 당호와 이름을 홍류동의 바위에 새겼으며,⁶⁵⁾ 1790년에 河鎭兌(1737~1800)도 최치원이 시를 지었다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⁶⁶⁾ 1872년 가야산을 유람한 宋秉璿(1836~1905)은 정상의 바위에 일행의 이름을 적었다.⁶⁷⁾

이동항은 제명에 대해 흥미로운 태도를 보인 사람이다. 그는 1787년 속리산을 여행할 때, 문장대에 여러 번 올랐던 金淨(1486~1521)과 成運(1497~1579)이 제명을 남기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며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이름이 정말로 큰 이름”이라면서 친구가 문장대에 제명하려는 것을 저지하였다.⁶⁸⁾ 그러나 4년 후인 1791년에 금강산을 유람하며 구촌 아저씨 형제가 바위에 새겨놓은 이름을 보고 어루만지며 슬퍼하였고, 만폭동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의 승려를 시켜 반석에 이름을 새기도록 하였으며, 九淵의 석벽에도 역시 승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하였다. 그리고는 따로 『楓嶽總論』이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이 제명을 비판하여 상황에 따라 제명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치가 뛰어나 유명한 곳에 제명하는 것은 금강산에서부터 못된 풍속이 되어 이 산에서 가장 심하게 되었다. 비록 더할 수 없이 깊고 인적이 드문 골짜기까지도 조

63) 申必淸, 『竹軒文集』 卷7, 『遊伽倻山錄』.

64) 兪拓基, 『知守齋文集』 卷15, 『遊伽倻山記』.

65) 鄭栻, 『明庵集』 卷5, 『伽倻山錄』.

66) 河鎭兌, 『杏亭文集』 卷2, 『遊伽倻山錄』.

67) 宋秉璿, 『淵齋集』 卷21, 『伽倻山記』.

68) 李東沆, 『遲庵文集』 卷5, 『遊俗離山記』.

금만 평평한 돌이 있으면 이름을 새겨서 조그마한 바위조차도 빈틈이 없는데, 이들 모두가 100년이 안 된 근래의 인물들이었다. 이에 비해 옛 어른들의 이름들은 모두 이끼에 먹혀 버리거나 물에 씻겨 닳아 없어져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 내 생각으로는 옛 어른들이 차례차례 밟으면서도 헛되게 소문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도 술을 마시며 기이한 흥을 부쳐 읊조릴 뿐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세상 사람들은 好名을 훔치려는 마음과 好事를 누리려는 습성으로 먹으로 새길 가치도 없는 것을 나무판에 새기고 돌 위에 새기기도 하였으며, 새긴 위에 또 새기고 하여 하루도 쉴 날이 없다. 그러므로 장안사와 표훈사·유점사·신계사 중들은 돌을 새기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또 뜨거운 불화로를 준비하여 쇠못을 달구어 두드려야 할 冶匠들조차 유람객의 가마 뒤를 따라다녀서 작은 쇠붙이조차도 만들 틈이 없게 되었다.⁶⁹⁾

위의 이동항의 기록을 보면, 제명에 승려와 야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들의 유산기 내용을 통해 당시 제명 과정을 복원해 보면, 제명하는 장소에 따라 그 방법이 조금 달랐다. 먼저 건물의 벽이나 기둥과 같은 장소에 제명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사대부들이 먹갈을 갈아 붓으로 글씨를 적었다. 이때 높은 곳에 글씨를 쓸 때는 김영조가 기록했듯이 붓을 지팡이나 긴 막대기 끝에 매달아 쓰기도 하였다. 먹으로 쓴 글씨가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건물 벽과 같은 장소는 이것으로 제명이 끝났으나, 나무의 경우에는 붓글씨를 바탕으로 나무를 파내 새기었다. 정자나 건물 안에는 따로 목판에 새겨서 걸기도 하였다.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작업은 사대부나 아닌 종이나 승려의 몫이었다.

바위에 제명을 할 때는 더 힘이 들었는데, 바위에 긴 이끼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붓으로 글씨를 쓴 다음, 정과 망치 등을 이용하여 바위를 파내었다. 여기에 다시 붉은색 등으로 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위를 파내어 글씨를 새기는 작업은 수행한 종이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동행한 승려들이

69) 李東沆, 崔康賢 譯註, 『遲庵의 海山錄』, 국학자료원, 1995, 131-132쪽.

하였다. 그래서 이동향이 기록했듯이 그 수요가 많았던 금강산 장안사·표훈사·유점사·신계사 등 큰 절의 승려들은 기술자 수준의 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정식의 『伽倻山錄』에는 “海環이라는 ‘刻僧’을 시켜 제명을 하였다.”라고⁷⁰⁾ 기록되어 있어 刻字를 전문으로 하는 승려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진태의 『遊伽倻錄』에는 더욱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일행인 “土溫에게 성명 세 자를 쓰게 하고, 바로 石工에게 명하여 홍류동의 최치원이 시를 쓴 곳에 새기게 하였다. 석공은 승려 峻和이다. ... 석공에게 세 글자 값으로 동전 5전을 주었다.”라는⁷¹⁾ 것이다. 당시 석공 역할을 하는 승려가 해인사에 있었으며, 글씨를 세긴 공임으로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전문 각자승의 존재는 정시한의 『산중일기』에도 나타난다. 그는 지리산과 속리산의 절에 머물며 만난 승려들을 기록하였는데, 그중에는 ‘木手僧’·‘畫圓僧’·‘刻字僧’ 등이 있었다. 즉 조선후기 사찰에는 목공·단청·각자를 전문으로 하는 승려가 있었던 것이다. 정시한이 만난 각자승은 綵侃이란 승려로, 지리산의 安國寺 東庵에 주재하고 있었다.⁷²⁾

한편 백두산 여행자들도 제명을 하였는데, 제명을 한 곳이 특이하다. 백두산은 현무암·조면암·유문암 등의 화산암과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위에 제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별다른 인공시설물도 없어서 제명할 만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1766년 백두산을 유람한 徐命膺(1716~1787)은 동행한 趙暉(1719~1777)과 함께 三池淵의 연못 중 하나인 中池 한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들어가 나무에 제명을 하였다. 이 섬은 당시 이름이 없었는데, 서명응이 ‘地樞島’라고 명명한 뒤, 섬에 들어가 붓으로 삼나무 꺾질에다 큰 글씨로 “지추도이다. 서명응과 조엄이 이곳을 지나갔다.”라고 쓰자, 동행한 사람들이 칼을 꺼내어 나무를 깊이 파서 새겼다.⁷³⁾ 그러나 서명응은 동행한 조엄에게 나중에 누가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탄식을 하였

70) 鄭弼, 『明庵集』 卷5, 『伽倻山錄』.

71) 河鎮兌, 『杏亭文集』 卷2, 『遊伽倻錄』.

72) 丁時翰·김성찬 역주, 『山中日記』, 국학자료원, 1999, 126쪽.

73) 徐命膺, 『保晚齋集』 卷8, 『遊白頭山記』.

다. 1809년 백두산을 유람한 徐淇修(1771~1834)도 삼지연 중지의 못가에 있는 삼나무를 깎아 희게 만든 뒤, 자신과 동행자의 이름과 날짜를 적었다.⁷⁴⁾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제명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의 명승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한진호는 1823년 丹陽八景을 유람하며 무수히 많은 제명들을 보았다. 그는 畝人巖에서 선조의 제명을 발견하고 물을 가져다가 이끼를 씻고 절을 하고 돌아왔다.⁷⁵⁾

5. 물놀이

우리나라의 명산들은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품고 있다. 조선시대 산을 유람한 사대부들 중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긴 이도 있었다. 몸을 노출하는 것을 꺼렸던 사대부들이 물을 즐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濯足이었다. 탁족은 계곡 물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여행 중에 탁족을 하였다는 기록은 유산기에 수 없이 등장한다. 특히 여름철에 유람을 할 때에는 여행으로 지친 몸을 위로하고 더위를 쫓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탁족은 정신 수양의 한 방법이었으며,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사대부들은 산간 계곡에서 탁족을 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씻긴다고 여겼는데, 이는 탁족이란 용어가 원래 『孟子』의 “창랑의 물이 맑음이어 나의 갓끈을 씻으리라. 창랑의 물이 흐림이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과 관련이 있다. 屈原의 고사에서 유래한 이 구절은 물의 맑음과 흐림이 그러하듯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의 처신 방법과 인격 수양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⁷⁶⁾

이 때문에 유산기에도 “갓끈을 씻고 발을 씻었다.”는 기록이 적지 않게 실

74) 徐淇修, 『篠齋集』 卷3, 『遊白頭山記』.

75) 韓鎭辰·李民樹 譯, 앞의 책, 66쪽.

7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2005, 314-315쪽.

려 있으며, 탁족을 하며 옛 고사나 시구를 떠올리는 사대부도 있었다. 1779년 북한산에 오른 이엽은 산영루 근처의 계곡에서 탁족을 하면서 중국의 韓愈가 쓴 시를 떠올렸으며, 자신도 탁족의 느낌을 칠언율시로 읊었다.⁷⁷⁾ 1712년 가야산을 여행한 유척기는 탁족을 한 뒤에 막혀 있던 가슴이 확 트이는 것을 느꼈다고 술회하였다.⁷⁸⁾

탁족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곡에 뛰어들어 목욕을 한 사대부들도 있다. 1485년 금강산을 유람한 남효온은 보덕굴 근처 계곡에 드러누워 물장구를 쳤다고 하며, 1493년 이원은 금강산 火龍淵에서 목욕을 하였다.⁷⁹⁾ 1725년 정식은 가야산 홍류동에서 세속의 먼지를 깨끗이 털고 싶어 목욕을 감행하였다. 그는 목욕을 하고 나니 “世間에서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웃고 말았다.”라고 술회하였다.⁸⁰⁾

한편 남효온은 물을 무척 좋아했던 사람으로 생각된다. 금강산 보덕굴에서 물놀이를 하였던 그는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溫井에⁸¹⁾ 머물며 5일 동안 온천욕을 즐겼으며, 1487년 지리산을 찾았을 때에도 糟淵에서 옷을 벗고 들어가 목욕을 하였다.⁸²⁾ 그렇지만 남효온이 즐긴 물놀이의 백미는 아래의 금강산 鉢淵에서의 폭포타기였다.

발연의 고사에 “유회를 좋아하는 중들이 폭포 위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놓고 그 위에 앉아 물 위로 뛰어들어 물을 타고 내려간다. 능한 자는 제대로 내려갔고 서툰 자는 거꾸로 내려갔는데,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 머리와 눈이 물에 빠져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도로 나오니 주변 사람들이 웃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나 그 돌이 미끄럽고 반질반질하여 비록 몸이 거꾸로 내려가도 다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놀이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운산에게 먼저 시험하게 하고 뒤를 이어 따라갔다.

77) 李燁, 『農隱集』 卷5, 『北漢道峯山遊記』.

78) 俞拓基, 『知守齋文集』 卷15, 『遊伽倻記』.

79) 李蘊, 『再思堂逸集』 卷1, 『遊金剛錄』.

80) 鄭弼, 『明庵集』 卷5, 『伽倻山錄』.

81)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외금강에 있는 온천으로, 현재는 금강산온천으로 불린다.

82) 南孝溫, 『秋江集』 卷6, 『智異山日課』.

운산은 여덟 번 뛰어들어 여덟 번 모두 잘 내려왔는데, 나는 여덟 번 뛰어들어 여섯 번 제대로 하였다. 바위 위로 나오니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다.⁸³⁾

위의 기록에 따르면, 외금강의 발연에는 인근의 鉢淵寺 승려들에 의해 일찍 부터 전해 오는 물놀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발연에 있는 폭포를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었다. 오늘날 물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물 미끄럼대 타기와 유사한 놀이로, 승려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남효온이 직접 8번이나 시도를 한 것이었다. 발연은 집선봉 동쪽 사면의 골짜기에 있는 沼로, 이 소와 그 아래 위에 형성된 또 다른 소를 연결해 주는 경사가 완만한 폭포가 있다. 폭포는 넓은 바위 바닥에 긴 홈통처럼 생긴 물길을 따라 흘러내리는데, 그 길이가 약 60m라고 한다. 남효온이 한 폭포타기는 바로 이 물길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었다.

남효온 이후에 발연사를 찾은 사대부들은 거의 모두 이 놀이를 재현하였으며, ‘馳瀑’ 또는 ‘水戲’라 부르며 큰 구경거리로 생각하였다. 1493년의 이원은 바람같이 날랜 말이라도 그 빠르기를 견줄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속도를 표현하였으며,⁸⁴⁾ 1531년의 成悌元(1506~1559)은 두 다리를 펴고 합장을 하며 타는 승려도 있다고 하였다.⁸⁵⁾

그런데 1553년 발연사를 찾아 간담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직접 폭포를 탄 흥인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직접 치폭을 한 것이 아니라, 발연사의 승려들을 시켜 폭포를 타게 하고 이를 관람하였다. 사대부로서 옷을 벗고 미끄럼을 타는 것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1628년에 이명준은 하인들에게 치폭을 시켰으며, 1687년에 발연사를 방문한 정시한을 위해서는 발연사의 수좌 승려가 그의 상좌에게 치폭 시범을 여러 차례 시켰다.⁸⁶⁾ 가장 압권은 1709년에 권섭이 기록한 승려와 기생을 동원한 아래의 치폭놀이였다.

83) 南孝溫, 『秋江集』 卷6, 『遊金剛山記』.

84) 李蘊, 『再思堂逸集』 卷1, 『遊金剛錄』.

85) 成悌元, 『東洲先生逸稿』 上, 『遊金剛錄』.

86) 丁時翰·김성찬 역주, 앞의 책, 242쪽.

발연사에 도착하니 절 앞이 이 놀이를 할 만하여 여러 승려를 시켜 치폭하게 하였다. 옷통을 다 벗고 속곳만 입고서 상류에 앉았다가 물길을 따라 곧바로 내려오는 데, 돌이 미끄럽고 물이 빠르게 흐르니 화살이 날아가듯 순식간에 돌 웅덩이로 떨어지다가 몸을 뒤집어 폭포로 향하여 앉으니 백발백중이었다. 한 승려가 먼저 치폭하고 한 기녀가 치폭하면서 폭포 아래에서 돌아앉으면, 기녀가 저절로 승려의 품안에 있게 되는 것이니 산속의 한바탕 즐거운 놀이였다. 이제 어린 승려에게 기녀를 대신하여 치폭하게 하니, 또한 포복절도할 만하였다.⁸⁷⁾

사대부의 유흥을 위하여 물놀이에 동원된 것은 금강산 발연사의 승려뿐이 아니었다. 1618년에 양경우는 지리산을 유람하기 전에 영암 월출산의 道甲寺에 들렀는데, 여기에서 아래와 같이 승려들에게 다이빙과 잠수를 시키고 이를 구경하였다.

곁에 있던 종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의 승려들은 물놀이를 잘하여 노는 모습이 볼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노승들에게 그리 한 번 해보라고 하자 미소년 승려 7~8명이 별거벗고 못 위에 늘어섰다. 두 손으로 음부를 가린 채 발을 모으고 솟구치더니 못 안으로 뛰어 들었다. 그들은 깊이 잠수하는 것으로 능함을 삼았다. 처음에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한참 후에 머리를 밖으로 드러내었다. 떠올랐다가 또 잠수하기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계속하며 쉬지 않았다. 그 가운데 출몰이 아주 날랜 한 승려가 못 위에 서 있는데, 숲 속에 큰 벌이 나와 그의 이마를 쏘았다. 그 승려는 그대로 땅에 쓰러져 울부짖었다. 잠깐 사이에 그의 눈썹과 눈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었다. 흥이 깨져 자리를 꺾었다.⁸⁸⁾

87) 문경새재박물관 편역, 『玉所 權燮의 『遊行錄』-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길』, 민속원, 2008, 41쪽.

88) 최석기 외 옮김, 『지리산유람록-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사, 2008, 74-75쪽.

6. 山祭

우리 선조들은 산을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초월적인 존재이며,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신성시하였다. 고대에는 국가의 운명이 산천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名山大川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제사를 지냈다. 신라시대에는 五嶽을 정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전통이 계승되었다. 조선시대 들어서도 산천의 신은 홍수와 가뭄, 전염병 등 민간에서 발생하는 재앙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다.⁸⁹⁾ 다만 조선은 유교를 이념으로 한 국가였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사로이 행하는 제사는 규제하였다.

조선시대 유람 여행을 주도한 사대부들은 모두 유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무속신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일반 백성에 비해 山祭에 대한 신뢰나 의존도가 낮았다. 그러나 사대부들도 山神이 날씨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유람 중에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유람객에 의해 산제가 행해진 산으로는 먼저 지리산을 꼽을 수 있다. 지리산에서 산제가 많이 행해진 것은 이 산이 신라시대부터 오악 중 南嶽으로 신성시되어 매년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리산에서 제사를 지낸 인물로는 1472년에 산에 오른 김종직이 대표적이다. 그는 저녁 무렵 천왕봉에 올랐는데 운무가 자욱하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 이에 동행한 승려들이 聖母祠에⁹⁰⁾ 들어가

89)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191쪽.

90) 성모사는 聖母像을 모신 사당으로 天王祠라고도 한다. 지리산 성모의 실체에 관하여는 여러 전승이 있었다. 첫째, 지리산 성모가 고려 태조의 어머니 威肅王后였다는 주장으로, 김종직이 『遊頭流錄』에서 처음 제기하였다. 이승휴의 『帝王韻紀』에 있는 “성모가 지리산 천왕이다.”라는 표현에 근거한 것이었다. 둘째, 마야부인설로, 석가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지리산의 성모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리산에서는 일찍부터 불교의 영향으로 산신을 마야부인이나 불보살이라 믿고 신앙하는 전통이 있었다. 셋째, 팔도무당의 시조 설이 있다. 아키바다카시[秋葉隆]의 『朝鮮民俗誌』에 따르면, 天神의 딸 聖母麻姑가 지

날씨가 개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기다가 속설에 성모에게 빌면 날이 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 날씨가 맑아져 달을 구경하고 멀리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⁹¹⁾ 1489년 천왕봉에 오른 김일손 역시 스승인 김종직이 한 것처럼 성모사에서 종들을 시켜 제물 두 그릇과 술을 차리게 하고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려 하였다. 제문의 내용은 자신이 유람하는 동안 날씨가 좋았던 것에 대해 산신에게 감사하고, 또한 홀로 남은 어머니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 술을 따르려는 순간, 동행한 鄭汝昌(1450~1504)이 성모사에 모신 이는 위숙황후가 아니라 마야부인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 논쟁하다가 제사를 포기하였다.⁹²⁾

김일손 이후에 지리산에 오른 사대부 중에는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1586년 지리산을 유람한 梁大樸(1544~1592)은 승려에게 성모사에 모신 성모상이 마야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세무민하는 말이라고 무시하였으며,⁹³⁾ 1611년 천왕봉에 오른 유몽인은 성모사가 무당들의 소굴이었다고 개탄하였다.⁹⁴⁾ 다만 1807년 천왕봉에 오른 河益範(1767~1813)이 구름이 자욱하고 세찬 바람이 일자 일출을 보게 해달라며, 따로 제물이나 제문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로 성모에게 빌었다는 기록을 남겼다.⁹⁵⁾

지리산 이외의 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으로는 1531년 금강산 九龍淵을 유람하던 성제원이 갑자기 천둥과 비를 만나 “용왕에게 제사 지내는 글을 지어 연못에 던지고 지은 밥으로 糗을 올리고 제사를 지냈더니 번개와 비가 멈추고 날씨가 개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이 있다.⁹⁶⁾ 그리고 1747

리산 천왕봉에 하강하여 法雨和尚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 딸 여덟을 낳아 조선팔도에 파견한 것이 조선 무녀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속에서는 큰 무당은 반드시 지리산에 가서 성모천왕에게 점진한다는 것이다(김갑동, 『고려시대의 남원과 지리산 성모천왕』, 『역사민속학』 1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36-242쪽; 秋葉隆·沈雨晟 옮김,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292쪽).

- 91) 金宗直, 『佔畢齋集』 卷2, 『遊頭流錄』.
- 92) 金駟孫, 『濯纓集』 卷5, 『頭流紀行錄』.
- 93) 梁大樸, 『靑溪集』 卷4, 『頭流山紀行錄』.
- 94) 柳夢寅, 『於于集』 後集 卷6, 『遊頭流山錄』.
- 95) 河益範, 『土農窩集』 卷2, 『遊頭流錄』.
- 96) 成悌元, 『東洲先生逸稿』 上, 『遊金剛錄』.

년 속리산을 유람한 趙璪(1727~1787)이 中獅子菴에 머무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 이를 그치게 해달라고 시를 지어 산에 빌고, 승려를 시켜 기도하도록 하니 바람이 잦아들었다고 한다.⁹⁷⁾

조선시대 유람객 사이에 산신에 대한 기도가 가장 성행했던 산은 백두산이었다. 백두산은 일찍부터 우리 민족의 聖山, 우리 산천의 祖宗으로 추앙을 받아온 산이었으며, 특히 조선후기 들어 백두산정계비 건립을 계기로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767년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제례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다.⁹⁸⁾

그렇지만 1751년 백두산을 유람한 李宜哲(1703~1778)의 『白頭山記』에 “이 지역 사람들의 풍속에 산에 들어가 노루·사슴·담비 따위를 사냥할 때에는 반드시 산신령에게 기도한다.”⁹⁹⁾ 그리고 1766년 서명응의 『遊白頭山記』에 “예로부터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하면 목욕재계하고 글을 지어 제사지냈다.”¹⁰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는 일찍부터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왔음을 알 수 있다.

백두산을 유람한 사대부들은 이러한 관행에 따라 백두산에 오르기 전에 제사를 올렸는데, 백두산 산제는 백두산의 입구에 해당하는 虛項嶺과 백두산 정상에 오르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 臙脂峰에서 두 번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 밖에 小紅丹水에서도 제사가 치러졌다. 이의철은 “이번 행차할 때에 장교와 하인들이 목욕재계하고 허항령에서 제사를 지냈다. 연지봉 아래에 이르자 다시 제사지냈다.”¹⁰¹⁾ 이러한 관행을 기록하였다. 박중은 1764년 백두산에 오를 때, 소흥단수에 도착하여 안내인 역할을 하였던 현지 주민 全通成의¹⁰²⁾ 청에 따라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다시 연지봉에서 무사히 유람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사를 지냈다. 연지봉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97) 趙璪, 『荷棲集』 卷7, 『俗離行記』.

98) 김정배 외,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76-77쪽.

99) 이상태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답사기』, 혜안, 1998, 238쪽.

100) 徐命膺, 『保晚齋集』 卷8, 『遊白頭山記』.

101) 이상태 외 역, 앞의 책, 238쪽.

102) 三山에 사는 約正으로, 백두산에 12번이나 다녀온 이였다고 한다.

동행하였던 鍾城府使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거절하였으나, 전통성이 전례를 따를 것을 굳이 청하여 제사를 지냈다.¹⁰³⁾

서명응도 안내를 맡은 군관의 말을 받아들여 연지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는데, 제사는 두 차례에 걸쳐 한 번은 甲山府使가, 다른 한 번은 茂山府使가 주도하여 지냈으며, 祭文은 모두 서명응이 지었다. 제문의 내용은 백두산은 중국의 崑崙山과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백두산에 올라 그 웅대한 경관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한스럽겠냐며, 산신이 우리의 성의를 받아들여서 구름과 안개를 거두고 산천의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한편 제수의 준비 등은 두 부사가 주도하였으나, 두 수령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지방관의 책임을 가진 자가 임금만이 할 수 있는 산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¹⁰⁴⁾ 서명응은 그렇지만 두 고을의 장교를 시켜 제사를 지낸 이유를 토착민들은 마땅히 그 지방의 풍습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사는 모두 새벽에 지냈으며, 신당을 짓기 않고 땅을 청소하여 자리를 깔고 지냈다.

1809년 백두산을 유람한 서기수도 허항령과 연지봉에서 제사를 올렸는데, 연지봉에서의 제사 모습을 “이날 밤에 나는 목욕을 하여 몸을 깨끗이 하였고, 일행에게는 머리를 올려 묶고 정성을 다해 기장밥을 짓게 한 뒤, 산신에게 기원하는 四言文을 지었다. 첫닭이 울 때 일행과 산에 올라 향을 피우고 백두산의 산신에게 빌었다.”라고¹⁰⁵⁾ 묘사하였다. 한편 1885년 공무로 백두산에 오른 李重夏(1846~1917)는 ‘紅丹祠’에서 제물을 진설하고 무사히 출장을 마칠 수 있도록 산신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기록하여, 이 시기에 이르면 홍단수에 산신을 모신 사당이 건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당의 편액은 ‘天王堂’이었고, 사당의 뒤쪽에는 또 다른 세 개의 작은 사당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白山堂’과 ‘黑山堂’, 그리고 ‘大願堂’이었다고 한다.¹⁰⁶⁾

103) 이상태 외 역, 앞의 책, 253-258쪽.

104) 徐命膺, 『保晚齋集』 卷8, 『遊白頭山記』.

105) 徐淇修, 『篠齋集』 卷3, 『遊白頭山記』.

7. 맺음말

조선시대 사대부들 사이에는 유람여행이 성행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은 유람여행 중에 경치를 감상하고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것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을 하였다. 유람 길에 평소에 만나지 못한 친지를 방문하여 회포를 풀고, 경치 좋은 곳에서 연회를 즐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시를 쓴다든지, 제명을 하는 것과 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활동도 있었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유람 중에 펼쳤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록인 유산기와 일기 등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 쓰기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유람 중에 가장 많이 하던 활동으로, 유람 때마다 시를 쓰는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대부들이 특정장소에서 선인들이 지은 시를 먼저 회상한 뒤, 자신이 느낀 감정과 비교하여 시를 짓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시를 짓는 장소는 사대부들이 많이 찾은 명승지나 사찰이었으며, 따라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유람 중에 쓴 시는 대개 그 소재가 중복되었다. 사대부들은 유람을 떠나기 전에 시를 쓰는데 필요한 문방구·시집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심하나, 유람 중에 하루에 수십 편의 시를 쓴 사대부도 적지 않았다.

사대부들은 유람 중에도 독서를 하였으며, 특히 저녁에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책을 읽었다. 사대부들은 많이 읽은 책은 『심경』, 『근사록』 등 마음공부에 관한 것으로, 유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었다. 사대부들은 유람 중에 동행한 친지, 산에서 만난 승려와 많은 토론을 하였는데, 그 주제는 유교와 불교, 산의 경치와 역사, 전설과 문화유산 등 다양하였다.

경치 좋은 장소에 자신의 이름이나 시를 쓰는 제명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

106) 이상태 외 역, 앞의 책, 307쪽.

로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모든 명승지에서 성행하였다. 사대부의 제명은 시 쓰기와 함께 선인의 유람관행을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강하였으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사대부들도 적지 않았다. 제명은 바위는 물론, 건물·나무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제명 장소의 선택에는 산의 자연지리적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승려와 노복이 글자를 새기는 데 동원되었다.

사대부 가운데는 산을 유람하는 동안 물놀이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 사대부들이 즐긴 물놀이는 탁족, 목욕 등이었으며, 여행으로 지친 몸을 위로하고 더위를 쫓는 좋은 수단이자,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금강산에서는 ‘치폭’이라는 폭포를 타는 놀이도 관행화되어 있었다. 금강산의 치폭은 주로 사대부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승려를 시키고 이를 구경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끝으로 산제는 지리산, 백두산을 여행한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주로 유람하는 동안 날씨가 좋기를 기원하였다. 특히 백두산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전통에 따라 산제를 지냈다.

[주제어]

조선시대, 사대부, 유람, 詩作, 독서, 토론, 題名, 山祭

■ 참고문헌

1. 사료

『葛峯先生文集』 『感樹齋文集』 『歸樂窩集』 『柑溪集』 『南冥集』 『農巖集』 『農隱集』 『澹虛齋集』 『鑑洲集』 『桃灘集』 『東洲先生逸稿』 『忘窩集』 『明庵集』 『武陵雜稿』 『百弗菴集』 『保晚齋集』 『浮查集』 『士農窩集』 『石堂遺稿』 『星湖全集』 『篠齋集』 『守夢集』 『於于集』 『與猶堂全書』 『淵齋集』 『梧潭先生文集』 『月沙集』 『伊溪集』 『潛窩遺稿』 『再思堂逸集』 『佔畢齋集』 『霽湖集』 『竹潭集』 『竹軒文集』 『知守齋文集』 『遲庵文集』 『芝厓

集』『靑溪集』『靑莊館全書』『秋江集』『濯纓集』『破閑集』『萍湖遺稿』『荷棲集』『寒岡集』『杏亭文集』『玄谷集』『晤堂集』『耻齋遺稿』

2. 저서 및 논문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 권경록, 『19세기 ‘三角山’의 문화지형과 공간의 재발견-柳匡天和 申命顯의 山水遊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 김갑동, 『고려시대의 남원과 지리산 성모천왕』, 『역사민속학』 1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 김동주 편역, 『금강산 유람기』, 전통문화연구회, 1999.
- 김선희, 『유산을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21(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 김용곤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답사기』, 혜안, 1998.
- 김용남,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2009.
- 김정배 외,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 문경새재박물관 편역, 『玉所 權變의 『遊行錄』-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길』, 민속원, 2008.
- 민경길 편역, 『북한산 3-시문집』, 집문당, 2004.
-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 이경수·강혜선·김남기 편역, 『17세기의 금강산기행문』, 강원대학교출판부, 2000.
- 이경순, 『1688년 丁時翰의 八公山 유람』, 『역사와 경계』 69, 경남사학회, 2008.
- 李東沆·崔康賢 譯註, 『遲庵 李東沆의 紀行錄』, 국학자료원, 1996.
- _____, 『遲庵의 海山錄』, 국학자료원, 1995.
-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 유람 양상』, 『정신문화연구』 34(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_____, 『조선시대 사대부 유람의 관행 연구』, 『역사민속학』 38,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이상태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답사기』, 혜안, 1998.
- 이욱(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원역 이욱전집』 1, 휴머니스트, 2009.
- 이혜순 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1-10권, 한국인문과학원, 1998.

- 丁時翰·김성찬 역주, 『山中日記』, 국학자료원, 1999.
- 정연식, 『조선시대의 여행조건 - 황윤석의 『西行日曆』과 『赴直紀行』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15,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 정우영 편, 『선인들과 함께 하는 금강산기행』, 인화, 1998.
- 정치영,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15(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 _____,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 _____,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4(3), 대한지리학회, 2009.
- 청량산박물관 편,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민속원, 2007.
- _____,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 민속원, 2009.
- _____,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 민속원, 2012.
- 최석기 외,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 보고서, 2009.
- _____,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4, 보고서, 2010.
- _____,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0.
- _____, 『지리산유람록-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서, 2008.
- 최석기,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지리산유람과 그 성향』,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 秋葉隆·沈雨晟 옮김,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 韓鎮辰·李民樹 譯, 『島潭行程記』, 일조각, 1993.
- 한형조·이창일·이숙인·이동희·최진덕, 『근사록-덕성에 기반한 공동체, 그 유교적 구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Activities of Literati's Travels in the Joseon Dynasty

Chi-Young Jung

(Associate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search on the various activities of literati during travel in the Joseon Dynasty. I used the travel account of seven mountains, such as Mt. Bukhan and Mt. Gungang, and the diary data containing travel records for this research. As a result, during the time of Joseon Dynasty literati traveled with writing, reading, discussion, inscribing names, etc.

First, literati wrote poetry during travel. They recalled the poem written by ancient people in a certain place, and then wrote their poem with their inspiration. Because of this, the materials of literati poems were usually duplicated. They mainly wrote about the major scenic spots and temples.

Second, literati did not neglect reading and discussing during the travel. The books mostly read by literati were 『Simgyeong(心經)』, 『Geunsarok(近思錄)』, etc. that were helpful to practice mind that is one of the key objectives of the travel. They discussed with friends who accompanied during the travel or monk who met at the mountain. The topic of discussion were various such as Confucianism, Buddhism, scenery and history of mountains, legends, and cultural heritages.

Third, inscribing names or poems in scenic spots was very prevalent in the Joseon Dynasty. This meant to follow the practice of ancestors but a few literati were critical. Inscribing place was various such as rocks, buildings, trees, etc. They let monks and servants help to carve letters.

Forth, literati enjoyed ‘Takjok(濯足, clean the foot at stream)’ and bath in the

valley during traveling mountains. These were for making weary body up and fostering the spirit. In Mt. Gungang, they enjoyed ‘Chipok(馳瀑)’ that is riding the waterfall. Finally, ‘Sanjae(山祭)’, religious service for the god of mountain, was for praying for good weather during travel. Literati who were travel Mt. Jiri and Mt. Baekdu served Sanjae. Especially, literati serve it in the tradition of the local people in Mt. Baekdu.

[Key words]

Joseon Dynasty, literati, travel, writing poems, reading, discussing, inscribing names, religious service for the god of mountain

논문투고일 : 2013년 6월 9일 / 논문수정일 : 2013년 7월 7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7월 20일